

다수 대표들이 공투본을 공동 투쟁 기구가 아니라 양보 교섭 수단으로 이용하는 지금,

전교조 지도부는 공투본에서 탈퇴해야 한다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공투본 소속 참여위원들이 “고통분담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들러리 기구”에 참여하더니 결국 양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개악 저지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던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실망과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앞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개악안을 제시한 새정치연합은 “공투본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애당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방향에 동의해 온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합의를 이끈) 명분과 (공무원연금 개악이라는) 실리를 모두 챙긴 셈이다.

공투본 소속 참여위원들은 “소득 단절 기간은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 단절을 초래하는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반대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결국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을 정년연장(65세)과 맞바꿀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물론 정년이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지급하려는 정부·여당의 안은 황당하다. 직장도 연금도 없이 5년을 살아남으라는 얘기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안은 연금 지급을 60세부터 하는 것 이어야지 정년을 65세까지 미루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생계 때문에 65세까지 교단에 서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국민연금 상향을 조건으로 고통분담



을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대타협기구 2라운드도 될 실무기구에서도 공적연금 강화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구 구성 논의만 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필두로 군인·사학연금 개악은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로 손볼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자 고통전가의 물꼬를 터주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그래야 공적연금 개악 도미노를 막을 수 있다.

단호

3월 27일 전교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규탄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했다. 그런데 그동안 대타협기구 참여에 반대하는 등 꾸준히 올바른 입장을 내 온 전교조

지도부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공투본 내 일부 대표들의 양보 입장에 대해 비판을 삼간 것은 아쉽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이 일부 공무원단체 대표들의 양보와 후퇴에 실망과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전교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비판에서 멈췄다.

그러나 전교조 지도부는 공투본 내 일부 대표들, 특히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양보와 후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투본을 탈퇴했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투본 내 일부 대표들의 합의가 실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거스른 불필요한 타협임을 폭로하며 투쟁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구심점 구실을 했어야 했다.

비록 제때를 놓친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교조 지도부는 공투본을 탈퇴해야 한다. 대타협기구가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제출된 개악안들을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투본 소속 참여위원들이 이 실무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양보안에 직접 사인을 해 주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무엇보다 실무기구는 5월 2일 국회 특위 종료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텐데, 양보 교섭으로 말미암아 4월 파업 전선을 교란할 게 자명하다.

공투본의 다수 대표들이 애초 기대와는 달리 공투본을 공동 투쟁 기구가 아니라 양보 교섭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지금, 전교조 지도부는 공투본에서 탈퇴해 투쟁 속의 단결을 향해 나아갈 때다. 이런 단호함이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이 연금 전투를 조직하는 데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새누리당 개악안 VS 새정치연합 개악안

최악이든 차악이든 어쨌든 개악이다

대타협기구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안을 꺼냈다. 정부·여당은 그중 김태일 교수 안을 이른바 절충안으로 유력하게 밀고 있다.

이 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구조 개혁'을 하되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저축계정까지 합치면 소득대체율이 상당한 수준이 된다"며 야당에게 협상 카드로 내밀었다. 소득대체율로 보면 공무원이 손해 볼 게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김태일 교수 안대로 하려면 공
무원 노동자가 추가로 소득의 4퍼센트
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정부는 2퍼센트
만 보조한다.

게다가 저축계정은 결코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독일의 경우, 2001년 연금을 삭감하면서 ‘리스터 연금’을 도입했다. 2012년 기준으로 리스터 연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보증이율’은 물가인상률 보다 낮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은 불안정하고 손실은 오히려 노동자가 떠안아야 한다. 독일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8년 만에 4.3퍼센트 감소했다.

김태일 교수의 안은 결국 세계은행과 OECD가 권고해 온 '연금의 다층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권고의 핵심은 국가 책임을 줄이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3월 25일에 자체 개악안을 내놔다. 기여금을 10퍼센트까지 올리고(현행 7퍼센트), 지급률을 1.7퍼센트까지 낮추는(현행 1.9퍼센트) 안이다. 퇴직수당은 현행을 유지한다. 한마디로 새누리당 안과 '도찐개찐'이다.

새정치연합의 개약안

새누리당 안이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
을 분리한 것과 달리 새정치연합 안은
신규 공무원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세
대 간 ‘분리’가 아니라 세대 간 ‘고통분
담’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 공무원
에 상대적으로 쏠려 있던 고통을 재직
자와 퇴직자로 나눠 줬을 뿐 전체 공무
원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크기
는 많이 줄지 않았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사용한 ‘소득재분배’ 꼼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나은 교사나 중위직 공무원의 연금으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연금을 약간 채우겠다는 것이다. 뒷돌 빼서 아랫돌 끼기 식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신의 안이 정부·여당
안의 2백66조 원보다 55조 원 많은 3백
2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자
랑한다. 그만큼 교사·공무원을 쥐어짠
다는 뜻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적
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 달성을 위해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투본 대표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먼저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는 기초연금 10퍼센트를 빼면 국민연금 40퍼센트로 사실상 개선 의지도 없는 수준이다.

대다수 공투본 대표들은 새정치연합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개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듯하다. 지난해 말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처리를 맞바꾼 야합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새정치연합은 어김없이 배신전문 정당임을 보여 줬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연금, 세월호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서 연이어 배신했고, 2007년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사회적 합의만 강조할 뿐 공무원연금 개악 자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별 이견이 없다. 얼마 전 문재인은 박근혜, 김무성과 3자 회담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연대해서 공직
연금을 강화한다거나 공무원연금 개악
을 막아내려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
험한 길이다.

양보를 요구하는 야당에 기대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해야 한다. 개악을 막아내는 진정한 힘은 두 자본가 정당들이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국회 안이 아니라 국회 밖에 있다.

[illegible]

법덕근사들이
독자들에게

〈벌떡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교사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4면짜리 월간 신문입니다.

〈벌떡교사들〉의 호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1부 연간 정기구독료는 11,000원입니다(우편료 5,000원 포함).

5부 이상 정기구독 시 우편료는 무료입니다.

- ▶ 구독자는 정기구독자가 돼 주세요.
- ▶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주위 동료 교사들에게도 서너 부 배포해 주세요.
- ▶ 공유하고 싶은 투쟁 경험, 투쟁 전술,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죠? 그러면 기고해 주세요. ruteachers@hanmail.net로 보내 주세요. 글 마감은 매달 12일입니다.
- ▶ 얼마라도 괜찮아요, 후원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및 후원금 입금 계좌] 농협 356-0965-6124-13 (예금주 김현옥)